

##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이 수 연<sup>†</sup>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토착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인 초기 대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행복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와 FGI를 통해 설문문항 102개를 추출하였다. 예비 검사로 565명 남녀 대학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전공만족, 외모지향, 사회성, 가족관계, 성취지향, 이성친구의 6요인에 대한 23문항을 구성하였다. 378명 남녀 대학생에게 본 검사를 실시하여 행복 척도에 대한 양호도 분석을 실시하고,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행복 요인구조는 6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의 요인계수도 적절한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6개 요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 후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행복, 토착 심리학적 관점,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수연,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E-mail : eigenwelt@naver.com

밀레니엄의 시작과 더불어 웰빙(well-being)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함께 국내에서도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복을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학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주관적 안녕은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Diener, 1984). 정서적 요소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말하며, 인지적 요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 삶의 만족도라고 흔히 지칭된다. 즉, 주관적 안녕은 많은 긍정 정서와 적은 부정 정서, 그리고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주관적 안녕의 예측요인으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성격적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행복감은 개인이 생활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결혼상태, 종교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일 뿐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리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eterson(2006)이 개괄한 바에 의하면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은 행복과 미미한 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결혼, 종교, 여가 활동 등은 행복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며, 직업, 낙관성, 자존감 등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에 따라 자기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이 둘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은 매우 다른 인지적, 정서적 경험을 한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들이 인간의 행동과 경험이 문화보편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측정들을 다른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구재선, 김의철, 2006). 이에 해당 문화권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맥락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토착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행복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의 심리적 구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측정도구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는 Diener(1985) 등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이다. 이 밖에도 Ryff(1989)는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율성, 환경통제력의 6 차원을 포함하는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측정도구로 주관적 안녕감을 대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Hills와 Argyle(2002)은 Oxford 행복 척도로 주관적 안녕감을 새롭게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도구의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문화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사회규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과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한영석, 임지영, 2003; 한덕웅, 2006; Diener & Suh, 1999). 이러한 토착 심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대별, 발달 단계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세대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들은 주로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 연구들이 많고(공수자, 이은희, 하미옥, 2005; 박군석, 한덕웅, 이주일, 2006; 임주영, 전귀연, 2004), 다른 세대 연구들은 주로 학생 집단(초, 중, 고, 대학생)과 성인 집단(박영신, 김의철, 2001, 2004)을

나누어 비교하거나, 혹은 20대에서 60대의 한국성인의 행복을 연구하는 등 기존의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한 집단 내에 포함된 연령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대별, 발달단계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인다(신지연, 2007). 이에 성인 초기의 대학생이 때로는 학생 또는 청소년 집단으로, 때로는 성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그들만의 독특한 주관적 안녕감의 요인이 모호하게 설명되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의 연구 범위를 국내 남녀대학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대학생에 관련된 선행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덕웅(2003)의 미국대학생과 한국대학생과의 인생관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 1979년 미국 대학생과 1980년 한국 대학생의 인생관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상추구를 위한 자기 통제가 강한 반면 미국의 대학생들은 여러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의 추구가 높았다.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 추구에 대해서 미국 대학생들은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는 데 반해 한국 대학생들은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은 정력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선호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의 유교문화의 영향과 오랫동안 지속된 농경생활과 지정학적 폐쇄성 등이 한국 대학생들에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차경호(1999)의 결과에서도 서양문화권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긍정적 대인관계는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자율성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생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척도는 김명소, 임지영(2003)의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척도”와 박병기, 홍승표(2004)의 “주관적 안녕 척도” 및 신지연(2007)의 “대학생의 행복요인 척도”가 있다. 이 가운데 김명소, 임지영과 신지연의 척도는 대학생만을 위한 척도 개발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척도 개발 과정에서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들어내고 있다. 두 경우 모두 FGI를 실시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행복요인이 각각 14개, 16개의 요인으로 나열되어 있다. 김명소, 임지영의 척도에서는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관리 및 성실성, 자기수용, 삶의 목적, 가족, 정체성, 사랑, 이타성, 자율성, 건강, 종교, 학업 능력 및 관심,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의 14개 요인이 들어있다. 신지연의 척도에는 대인관계, 전공적성, 외모, 가족, 능력 또는 잠재력, 자기관리, 경제력, 미래목표, 이성친구, 건강, 여유 및 휴식, 정서적 안정, 취미, 사회 환경, 긍정적 태도, 자기표현의 16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는 요인분석의 간명성(parsimony)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요인분석시 사용한 방법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김명소, 임지영의 경우 요인분석시 주성분 분석을 사용했다는 언급 이외에는 구체적인 척도 개발 방법을 알기 어렵다. 이는 요인분석시 주성분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공통요인분석보다 선호되지 않는 방법일 뿐 아니라 단순히 주성분 분석만으로 요인 분석을 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FGI를 통해 추출된 많은 문항을 그저 한번 추려냈었다는 의

미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구인을 다루는 척도를 개발할 경우, 주성분 분석을 통해 추려낸 문항들을 2차로 보다 정교하게 공통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순목, 1995). 신지연의 경우 요인분석시 SPSS를 사용하여 보다 단순한 구조를 얻기 위해서 Varimax 직각 회전을 사용한 후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 중 scree plot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이는 직각회전보다는 사각회전이 심리적 구인을 선별해 내는 데 더 타당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더 이상 요인추출의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Kaiser의 고유치 1이상의 기준을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이 경우 요인들의 누적분산비율이나 평행성 분석, 요인의 모형적합성의 지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SPSS를 사용하여 요인이 14개 또는 16개로 나왔을 경우에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다수의 요인들을 상위의 요인들로 다시 구성하는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병기와 홍승표의 연구는 요인이 정적 정서 안녕, 부적 정서 안녕, 정적 효능 안녕, 부적 효능 안녕, 대인관계 안녕의 5요인으로 간명성의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으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정적 정서, 부적 정서로 지나치게 폭넓게 구성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구성 개념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단점이 있다. 덕분에 이 척도는 반드시 대학생만을 위한 척도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타당화 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는 대학생만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라기보다는 전반적 주관적

안녕감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대학생의 행복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방법론적 단점을 보완하며 토착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의 행복 구성 요인들을 찾아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심리측정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중 15명이 각각 10명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특성들에 대해 자유롭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구성된 질문지를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568명의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남학생 302명, 여학생 276명이었으며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8세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1.2세(SD=2.3)였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연령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질문에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565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체화된 요인과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된 측정 변수간의 가정된 관계구조가 얼마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37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

은 만 18세에서 만 29세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1.5세(SD=3.2)였다. 회수된 자료 총 378부 중에서 불성실 응답자 16부를 제외한 362부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국내외 관련 척도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 총 102문항이 도출되었다. 내용적으로 대인관계 36문항, 성취감 18문항, 경제적 의존성 16문항, 전공적성 16항, 외모 16문항 등 5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통해 최종 구성된 대학생 행복 척도는 전공만족 4문항, 외모지향 4문항, 사회성 4문항, 가족관계 4문항, 성취지향 4문항, 이성친구 3문항 등 6요인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제작되었으며 각 항목에서 자신에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매우 아니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은 통계 패키지 SPSS 16.0으로 먼저 varimax 방식의 직각회전을 사

용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으로 요인 부하량 0.4 이상인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그 문항들 가운데 각 문항 간 상관을 검토하여 0.8이상인 문항을 확인하여 제거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SAS를 사용하여 추출된 요인 구조의 해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변량만을 사용하는 공통요인(common factor)분석에서 단일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지정하였으며 공통변량 초기값은 다중상관계 곱치(SMC)로 지정하였다. 요인의 회전방식은 각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에서 oblimin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하량이 여러 요인에 걸쳐 높게 나타나거나 어떤 요인에도 0.3 이하의 낮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 및 본래 의도했던 요인과 다르게 묶여 해석 가능성이 낮은 문항들은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문항에 대한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은 통계 패키지 AMOS 16.0을 사용하였다.

**결 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

표 1. 대학생의 행복 요인 고유치

요인	1	2	3	4	5	6	7
고유치	8.247	4.761	2.947	2.563	1.961	1.082	0.992
차이	3.486	1.813	0.384	0.602	1.082	0.090	0.160
분산비율	0.312	0.180	0.111	0.097	0.074	0.041	0.037
누적분산비율	0.312	0.493	0.605	0.702	0.776	0.817	0.855

값은 0.993으로 0.8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함을 보여주며 Bartlett의 유의도 검증은  $\chi^2 = 12752.559$ ,  $p < .001$  으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좋은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요인의 scree plot에서의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평행성 분석 및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개수를 정하였다. scree plot에서 고유치의 현저한 차이는 5번 요인과 6번 요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요인들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누적분산비율은 5번 요인에서 75%를 넘어 7요인에서 85%에 도달하고 있다. 공통요인분석에서는 전체공통분산의 75~85% 정도가 설명되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퍼센트가 지극히 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다(Gorsuch, 1983). 또한 평행성 분석의 결과, 일곱 번째 고유치에서 랜덤자료에서 나온 고유치(1.025)가 경험자료(0.992)에서 나온 것 보다 크다. 이 방법의 논리는 비교적 의미있는 요인구조가 들어있는 경험 자료를 근거로 한 축소상관행력의 고유치는 큰 분산을 나타내야 하므로 요인구조가 들어있지 않은 무선자료를 근거로 한 축소상관행력에서 구한 고유치의 값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 방법은 공통분 추정치로 SMC를 사용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비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PARALLEL"(Hays, 1987)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요인구조가 안정적이고 해석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선택하고자 최종적으로 6요인 모형을 도출하였다. 6요인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전공에 대한 만족과 전공을 살리고 싶은 정도를 나타내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전공에 대한 만족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요인은 "전공만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피부 관리, 다이어트, 성형수술, 외모에 대한 열등감 등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외모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요인은 "외모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의 편안함 또는 불편함을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외향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 요인은 "사회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4요인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부담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요인은 "가족관계"라고 명명하였다. 제 5요인은 계획과 목표에 대한 성취, 최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미래에 대한 성취를 지향하는 내용이므로 이 요인은 "성취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제 6요인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이성친구에 대한 소중함, 즐거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요인은 "이성친구"라고 명명하였다. 6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852 ~ 0.698로 적정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2차 자료를 토대로 대학생 행복 요인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를 검증하기에 앞서 문항에 대한 양호도와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은 평균이 2.17에서 3.50, 표준편차가 0.58에서 0.83의 범위를 보였다. 각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도 0.30 이상을 보여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양호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표 2. 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5	6
전공 만족	a1. 나는 지금의 전공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다.	0.819	-0.094	0.116	0.201	0.190	-0.005
	a2. 나는 전공을 바꾸고 싶다. (역)	0.817	-0.108	0.196	0.198	0.098	0.015
	a3. 나는 전공 선택에 만족한다.	0.812	-0.103	0.097	0.192	0.080	0.054
	a4. 나는 지금의 전공을 살려 진로를 선택 하고 싶다.	0.753	-0.071	0.032	0.083	0.203	0.096
$\alpha = .852$							
외모 지향	b1.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0.093	0.702	-0.099	-0.128	0.033	-0.061
	b2.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조절한다.	-0.166	0.767	-0.203	-0.148	-0.300	-0.124
	b3. 나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 (역)	-0.116	0.762	-0.197	-0.193	-0.414	-0.148
	b4. 나는 돈이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성형수술이다.	-0.129	0.600	-0.083	-0.150	-0.058	0.110
$\alpha = .803$							
사회성	c1. 나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한다.	0.103	-0.138	0.795	0.274	0.161	0.267
	c2. 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하다. (역)	0.047	-0.100	0.669	0.167	0.083	0.143
	c3. 나는 사람들과 많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0.043	-0.017	0.623	0.232	0.202	0.336
	c4. 내 주위에서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역)	0.221	-0.280	0.645	0.321	0.220	0.232
$\alpha = .723$							
가족 관계	d1. 나는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0.114	-0.080	0.234	0.744	0.105	-0.023
	d2. 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0.129	-0.287	0.260	0.750	0.161	0.087
	d3. 나는 가족으로 인해 짜증날 때가 많다. (역)	0.043	0.029	0.034	0.543	0.004	-0.170
	d4.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가족을 이루고 싶다.	0.185	-0.034	0.055	0.568	0.083	-0.183
$\alpha = .750$							
성취 지향	e1. 나는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는 것을 지향한다.	0.173	-0.257	0.270	0.149	0.617	0.112
	e2. 나는 목표한 일을 해 냈을 때 희열을 느낀다.	0.111	-0.240	0.025	0.139	0.559	0.287
	e3. 나는 어느 일에서나 최고가 되고 싶다.	0.076	0.073	0.005	-0.018	0.432	0.101
	e4.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빨리 알고 싶다.	0.097	-0.101	0.153	0.197	0.474	0.150
$\alpha = .735$							
이성 친구	f1. 나는 이성친구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0.030	-0.106	0.128	-0.060	0.213	0.580
	f2. 나는 이성친구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	0.043	-0.071	0.283	0.069	0.109	0.405
	f3. 나는 이성친구와 데이트할 때 즐겁다.	0.163	-0.107	0.050	0.079	0.161	0.422
$\alpha = .698$							

표 3. 대학생 행복 요인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총점 간 상관

요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 총점 간 상관	신뢰도
전공만족	a1	2.88	0.77	0.60	0.86
	a2	2.97	0.83	0.51	
	a3	2.99	0.70	0.64	
	a4	3.07	0.82	0.47	
외모지향	b1	2.17	0.71	0.38	0.83
	b2	2.27	0.82	0.35	
	b3	2.09	0.72	0.32	
	b4	3.09	0.71	0.38	
사회성	c1	2.86	0.76	0.33	0.78
	c2	3.00	0.63	0.30	
	c3	2.85	0.75	0.31	
	c4	3.21	0.67	0.35	
가족관계	d1	2.17	0.71	0.35	0.73
	d2	3.07	0.79	0.41	
	d3	3.25	0.65	0.42	
	d4	3.50	0.58	0.39	
성취지향	e1	3.16	0.78	0.30	0.70
	e2	3.20	0.64	0.35	
	e3	2.96	0.75	0.35	
	e4	2.84	0.77	0.45	
이성관계	f1	3.15	0.65	0.43	0.68
	f2	2.88	0.77	0.60	
	f3	2.97	0.83	0.5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학생 행복 요인 측정  
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과 요인계수  
는 그림 1과 같다.

모든 문항의 표준화, 비표준화 계수는  $\alpha$  수  
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1

에서 보듯이 표준화 값은 0.32에서 0.87까지  
안정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얻어진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chi^2$  검증을 이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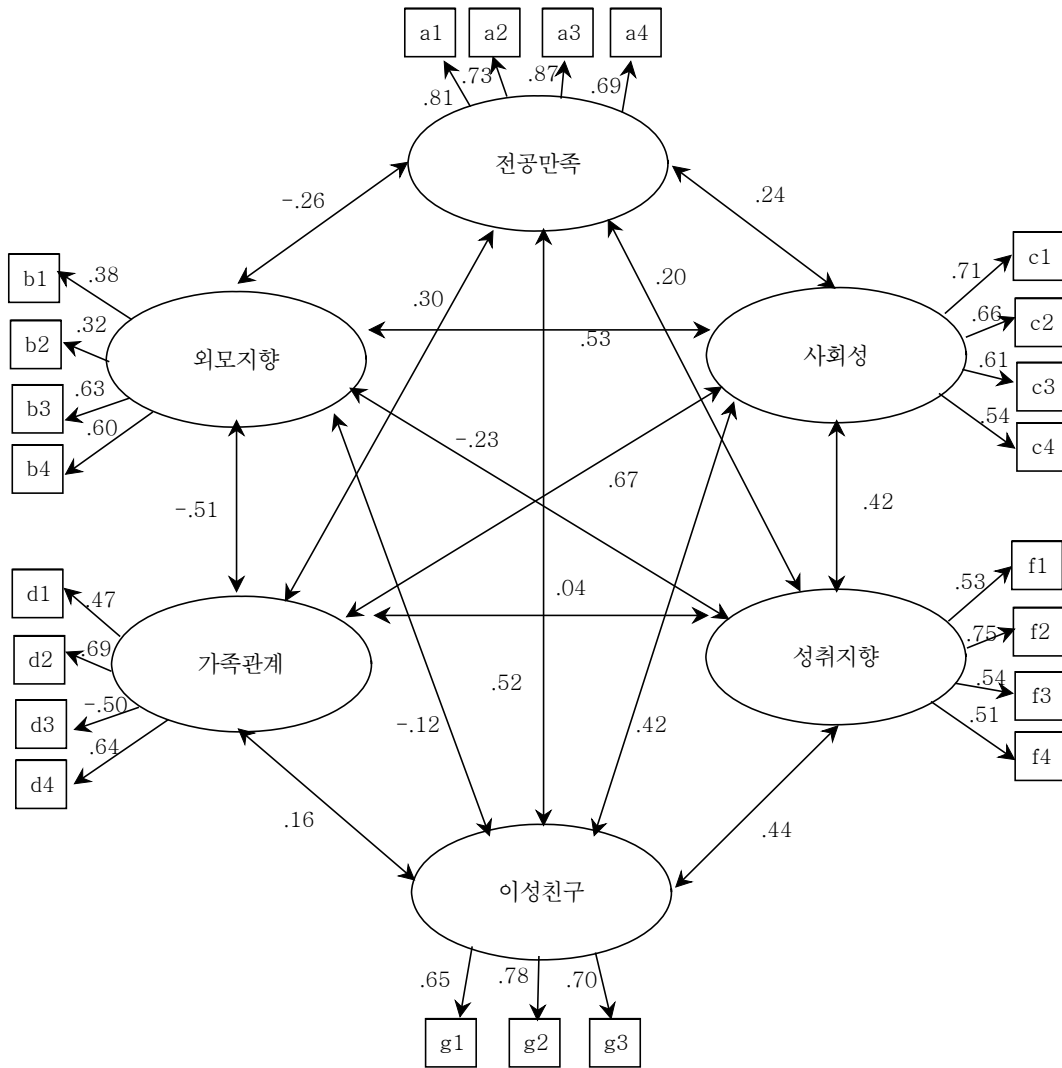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 행복 요인의 6요인 모형

표 4. 대학생 행복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

적합도 지수	$\chi^2$	df	p	CFI	TLI	RMSEA
6요인 모형	543.307	410	.000	.936	.914	.031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chi^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크기가 조금만 증가해도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

기각이 매우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chi^2$  검증은 보고는 하나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홍세희, 2000). 이러한  $\chi^2$  통계치의 한계

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031로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CFI값이 .936으로 Bentler와 Bonet이 제시한 좋은 모형의 부합도 지수 기준인 .90을 넘고 있으며 TLI의 값 .914도 기준인 .90을 넘고 있다(이순목, 2000). 따라서 전반적인 합치도 지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대학생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척도가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초기 대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행복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구인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척도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 150명의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대인관계, 성취감, 경제적 의존성, 전공적성, 외모의 5개 하위요인을 선정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검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전공만족 4문항, 외모지향 4문항, 사회성 4문항, 가족관계 4문항, 성취지향 4문항, 이성친구 3문항 등 6요인 총 23문항을 도출해냈다. 본 검사를 통해 23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처음 제안한 5요인 모형이 아닌 6요인 모형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요인 모형에서는 5요인 모형에서 대인관계로 뭉쳐 있던 요인이 사회성의 심리적 특성변인과 가족관계, 이성친구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나뉘어졌으며 경제적 의존성 요인은 배제된 결과이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전공만족 0.86, 외모지향 0.83, 사회성 0.78, 가족관계 0.73, 성취지향 0.70, 이성친구 0.68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가 대학

생의 행복을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이며,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학생 행복 척도의 6가지 요인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명하면서도 구성개념이 구체화된 요인구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기존 대학生の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방법론적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그 요인의 속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리적 특성만으로 구성되었거나 혹은 탐색적 요인분석만으로 14개 또는 16가지의 행복요인을 나열해 놓은 한계를 보완하였다. 도출된 6개의 요인은 뚜렷하게 전공만족, 사회성, 외모지향, 성취지향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관계, 이성친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으로 구별되고 있어 기존의 척도들에 비해 대학생들의 행복을 측정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결과와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력과 건강 요인 배제에 대한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 고찰의 결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구재선과 김의철(2006)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경험과 경제적 여유가 건강보다 행복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존의 척도나 연구에서 나타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실제 FGI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낼 수 있을 정도의 빈도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실제 가장 건강한 연령대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건강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요인

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GI에서는 요인으로 묶여져 나온 경제적 의존성 문항들은 분석 결과에서는 요인부하량이 .03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이유는 문항을 제작하면서 경제적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용돈을 절약하기 위해 학교 구내식당을 애용한다거나 주식투자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저축상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유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 바램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경제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막연하게 행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이나 경제적 여유가 실제 현재 상황에서 그들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요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행복 요인은 다름 아닌 전공에 대한 만족과 성취지향성이라는 심리적 요인이다. 이는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발달단계상의 과업을 반영하는 특성이다. 즉,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해 낼 수 있는 성향이 높을수록 하는 것들이 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외모지향에 대한 관심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표현하였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행동은 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외모에서의 열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부 마사지, 다이어트, 성형수

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각종 마스크와 사회분위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이들의 가치관 속에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가족관계와 이성 관계에서의 중요성과 사회성이 이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가족, 이성 친구와 심리적 특성인 사회성은 성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들로 입증되어 왔으며(권석만, 2008),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사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행복 요인으로 밝혀졌다(차경호, 1999). 본 척도에서도 대인관계 변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행복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구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율성은 본 연구에서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성취지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덕웅(2003)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대학생들과는 달리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을 억제하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이 본 연구에서도 증명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행복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이러한 연구를 전문대 등의 모든 대학생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척도 개발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과의 준거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첫째, 개발된 척도가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6개의 하위요인들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차이가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집단분석을 통한 잠재평균 분석을 제안한다. 셋째,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의 요인과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토착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6개의 하위 요인들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 또는 조절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들은 전무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학습, 진로, 생활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공수자, 이은희, 하미옥 (2005).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구성에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0(1), 32-48.
-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1), 1-18.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문제, 12(2), 77-100.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 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 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8(1), 1-33.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119-145.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973-1002.
- 박근석, 한덕웅, 이주일 (2006).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노화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131-156.
- 박병기, 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1), 59-175.
- 신지연 (2007). 대학생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서울: 성원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임주영, 전귀연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 노년학, 24(1), 25-48.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과학 연구,

- 189(dec.), 575-595.
- 한덕웅 (2003). 한국 유학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2006).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주관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77-10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2),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30-141.
- Diener, E., Wolsic, B., & Fujita. F.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2), 653-663.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Russell-Sage.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iener, E., Suh, E. M.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Russell-Sage.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New York: Lawrence Ealbaum.
- Hays, R. D. (1987). PARALLEL: A Program for Performing Parallel Analysi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1, 58-74.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45.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Peterson, C., Samu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N. E. P. (1982). The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1), 287-299.
- Peterson, C., Seligman, N. E. P. & Valilant, G. E. (1988). Pessimistic explanatory style is a risk factor for physical illness: A thirty-five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1), 23-27.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1), 44-55.
- Peterson, C., & Vaidya, R. S. (2001). Explanatory style, expect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3), 1217-1223.
- Peterson, C., & Seligman, N.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57(3), 1069-1081.
-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4(1), 99-104.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719-727.
- Ryff, C. D., & Singer, B. (1996). Psychological well-being: Meaning,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5(1), 14-23.
- Ryff, C. D., Singer, B., & Love, G. D. (2004). Positive health: Connecting well-being with biology.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359(4), 1383-1394.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1073-1082.
- 원고접수일 : 2010. 03. 01.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3. 31.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5. 09.  
최종게재결정일 : 2010. 06. 22.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Soo Yeo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in indigenous psycholog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previously developed empirical evidence and FGI, 102 preliminary items are yield. The data of 565 students were used for conducting an exploring factor analysis. In result, the 23 items scale consist of six-factor of a Happiness subscale(4 items of majority satisfaction, orientation for appearance, sociability, family relationship, orientation for Achievement and 3 items of opposite-sex relationship). For the final scale, 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from the data of 378 students. A result revealed that the six- factor structure of a Happiness Scale was appropriate to represent the happy structure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each factor was reasonably high ranging from .86 to .68. Implications for counsel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Korean college students, happiness, indigenous psychological perspective, exploring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부 록

확인적 요인분석의 상관행렬 표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c4	d1	d2	d3	d4	d5	f1	f2	f3	f4	f5	g1	g2	g3	
a1	1																									
a2	0.567	1																								
a3	0.306	0.633	1																							
a4	0.313	0.533	0.636	1																						
b1	-0.117	-0.293	-0.136	-0.209	1																					
b2	0.121	0.039	0.036	-0.032	0.235	1																				
b3	-0.049	-0.215	-0.114	-0.083	0.106	0.036	1																			
b4	-0.133	-0.266	-0.152	-0.191	0.103	0.208	0.216	1																		
c1	0.081	0.047	0.172	0.034	-0.053	0.067	-0.179	0.093	1																	
c2	0.073	0.301	0.093	0.107	-0.047	0.09	-0.238	-0.104	0.461	1																
c3	0.049	0.014	0.126	0.103	0.022	0.032	-0.203	-0.047	0.393	0.491	1															
c4	0.120	0.072	0.114	-0.047	-0.093	-0.033	-0.311	-0.083	0.330	0.268	0.209	1														
d1	0.123	0.024	0.099	0.101	-0.017	0.047	-0.179	-0.013	0.134	0.234	0.228	0.140	1													
d2	0.200	0.094	0.074	0.130	0.003	0.103	-0.132	-0.037	0.279	0.504	0.268	0.098	0.460	1												
d3	-0.114	-0.061	-0.04	-0.013	0.162	-0.021	0.234	0.106	-0.179	-0.261	-0.093	-0.130	-0.339	-0.301	1											
d4	0.017	0.019	0.048	0.101	-0.033	-0.008	-0.196	-0.134	0.243	0.413	0.330	0.093	0.433	0.433	-0.297	1										
f1	0.002	0.041	0.031	0.067	0.042	0.031	-0.066	-0.149	0.034	0.117	0.140	-0.087	0.083	0.233	-0.193	0.066	1									
f2	0.164	0.036	0.141	0.103	0.093	0.078	-0.031	-0.191	0.093	0.218	0.191	-0.002	0.192	0.317	0.018	0.110	0.371	1								
f3	0.187	-0.023	0.082	0.121	0.138	0.063	-0.038	-0.046	0.193	0.217	0.377	0.120	0.124	0.173	-0.089	0.163	0.229	0.383	1							
f4	0.032	-0.006	0.113	0.073	0.131	0.063	0.037	-0.087	0.124	0.097	0.173	-0.007	0.033	0.228	0.03	-0.018	0.243	0.346	0.277	1						
g1	-0.014	-0.038	0.113	0.042	0.093	0.063	0.034	0.126	0.109	-0.008	0.132	0.093	-0.046	-0.004	0.147	-0.301	0.037	0.026	0.032	0.213	1					
g2	0.026	0.034	0.160	0.169	0.163	-0.013	-0.037	0.040	0.217	0.087	0.289	0.093	0.064	-0.018	0.112	-0.033	0.103	0.092	0.209	0.149	0.474	1				
g3	0.024	0.068	0.088	0.171	0.079	0.099	-0.203	-0.061	0.164	0.149	0.302	0.041	0.017	0.173	0.023	0.123	0.110	0.171	0.198	0.174	0.339	0.466	1			